

신성장 동력으로 힘찬 도약!

전북연구원,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새만금이 최적"

전북도가 최근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가 뛰어난 가운데 초대형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에 새만금 지역이 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전북도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 기대 효과 및 연계 방향'을 주제로 이슈 브리핑 발표했다.

전북도에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데이터센터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 제고로 인한 인프라 및 연관 산업 투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 혁명의 필수 기반 시설임과 동시에 전력 정비 산업의 수요 시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3% 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

효과와 중장기적인 부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지금까지 중소 규모로 수도권에 64%가 밀집한 상황이지만, 새만금이 초대형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추가 확장이 용이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국가간 해저 광케이블 연결망 구축이 가능하여 초대형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이 용이하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건설 단계에서 1400~1만1000명, 운영 단

계에서 230~1900명의 고용이 전라북도에서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민약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운영될 경우에는 240억의 GDP와 504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전북연구원은 미국 버지니아 주와 네덜란드 Agipart A7의 경우,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유치로 지역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추가적인 데이터센터와 IT 분야의 기업 유치 등 산업 구조 개편 효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 유치 효과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데이터센터 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전력 거래와 데이터센터 관련 건축법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데이터센터 특구를 조성하고 ▲물리적 전력거래를 위한 전력망을 구축하며 ▲금융, 스마트팜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공 데이터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국회는 '팅팅' 7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개문발차(開門發車)로 회기를 시작했지만 추경안, 안보국회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7월 국회마저 '헛바퀴'를 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9일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 온 시민 모습.

전북도, '보고 듣는'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

전북도는 너울성 파도 갯골 등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9일 고창군 동호항에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은 기존의 듣는 경보시설과 달리 위험경보 문자 발송 및 음성방송이 가능한 '보고 +듣는' 다목적 경보단말시설로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해안가 주변 이용객의 대피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전북도는 2016년부터 국·도비 2.4억원을 포함 총 4억원을 들여 부안 모항해수욕장, 고창 만돌 및 하전 갯벌 체험장, 구시포 해수욕장에 이어

올해 동호항까지 모두 5곳에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을 확충해 왔다.

현재 전북도내에 설치된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은 전광판을 통해서 기상청 연계정보를 활용, 기후변동상황, 기상특보, 재난문자 등 실시간 상황을 표출해주고 있으며, 도 경보 통제소와 군 재난상황실에서 직접 육성으로 실시간 위험상황을 전파해 재난발생시 주변 이용객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제 이번달 9일 밤 11시경 부안군 번산항 하섬 인근 갯벌에서 밀물에 고립된 신모지(27) 등 2명이 해양경찰에 구조되는 등 도내 서해안 지역에서 바닷물에

고립되는 안전사고는 매년 20~40건씩 발생해왔으며,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18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서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은 해수욕장 및 갯벌 체험객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민방위경보시설과도 연동되어 있어 재난 발생 및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에 민방위경보 방송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전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우리 도는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을 조기에 구축 완료하였고, 앞으로 도 해안가를 대상으로 다목적 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어촌 부가가치 창출 위한 특화지원센터 운영

전북도는 어촌특화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1일에 해양수산부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연간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는 어촌특화산업화를 희망하는 도내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특화상품 판로 확보 및 홍보지원, 신규사업 발굴 제시 등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6차산업화를 통한 어촌발전 전을 견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전북도와 센터에서는 어촌특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마을별 어촌특화 지원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어촌뉴딜 300사업 5개소 579억원(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분야 7개소 350억원(18~20년) 총 12개소에 929억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올해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는 운영 2년차를 맞아 도내 어촌과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촌특화역량강화교육 △선도마을사후관리 △온라인 플랫폼 디자인·홍보물·포장재 제작 지원 △내수면 특화상품 연구개발 △관매장터 및 박람회 참가 △바다다꾸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김해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어촌의 수산물과 우수한 자연경관 등의 자원을 가공·유통·서비스, 관광산업과 융·복합하여 어업 외 소득을 증대토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축산시험장·전북한우협동조합 수송아지 위탁분양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 성수면 소재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은 29일 전북한우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갖고 계획교배를 통해 생산된 우수 혈통의 한우 수송아지 13마리를 전북한우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한우 수송아지는 15~17개월령으로 전북도 한우육성센

터에서 당대검정을 마친 거세우로서 혈통관리기 우수하며 농가에서 비육검정 종료 시까지 사육하여 도축 후 시험장에서 도체성적 조사를 하여 가족개량효과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협력사업을 통해 위탁 분양하는 송아지가 한우 사육농

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 좋은 송아지를 분양하는 만큼 실질적인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혈통의 번식 암소집단을 조성하고 고능력 수정란 생산 보급을 통한 한우 능력개량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에 22개소 25억 지원

전통식품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가 도내 전통식품 체험시설과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8곳의 우수 전통식품 체험시설(8개소, 20억원)을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체험장을 설치하고 지역의 관광 상품과 연계해 소비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첫 오픈한 고창 영농조합 토골원장이 전통식품 체험시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역 농업인과 계약 재배한 엄선된 콩을 주원료로 된장이

발효되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저온 숙성된 저염식 토골된장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TV 프로그램인 삼시 세끼 촬영지 및 구시포 해수욕장을 연계해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미국 등 해외 방문객에게 극찬을 받고 있는 곳으로 향후 지역의 관광 상품과 함께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 품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14개소, 5억원)은 각 시군에서 선정된 대표 식품 업체 대상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함으로써 국내·외 경쟁력

을 높여서 신규 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에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를 초청 사업계획 보완, 상품생산성 및 매출 확대에 대한 솔루션 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7~8월 중에는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수행시 발생한 애로 사항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호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전통 식품을 육성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해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전북지역 2279명

전북도는 지난 6일 치러진 제28회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결과 전북지역에서 2279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문인력으로, 도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합

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2008년 4월부터 교육 수료증으로 발급되었다가 2010년 4월 국가자격증 시험제도로 전환하여 매년 3회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2019년 2차(2019. 7. 6)에 치러진 제28회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시험 결과 전북에서는 2279명이 합격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은 나이제한

이 없어 다양한 연령층에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라 사회적 인식 및 서비스 수요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을 통한 재취업 기회 확대로 응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총 41개소로 매년 3회 실시되는 시험에 5천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